

정비사업을 통해 본 부여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의 특성

김미진* · 소현수**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선임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A Characteristics of Cultural Heritage Landscaping of Jeongnimsa Temple Site in Buyeo from Perspective of Maintenance Project

Kim, Mi-Jin* · So, Hyun-Su**

*Senior Researcher, The Baekje Culture Foundation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maintenance project of the Jeonglimsa temple site started with the objective of restoring the original structure of the temple, however, it was gradually transitioned to a landscaping maintenance project over time that constructs a landscape of the temple area. With paying attention to these facts, this study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heritage landscaping of the Jeonglimsa temple site as follows.

First, Cultural heritage landscaping is a landscaping act that creates, maintains, and manages landscapes within the spatial scope of the cultural heritage designated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rea established around it. It is a work that includes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the excavated remains, spaces by each function and plans for moving lines, Installation of structures to protect cultural properties, adoption of the facilities and structures for convenience of visitors, and construction of vegetation landscape. Second, the cultural heritage landscaping of the Jeonglimsa temple site has been developed in 5 periods, and these include ‘the period of historical site investigation’ that the temple name was identified through the designation of cultural assets and excavation investigation by the Japanese rule, ‘the construction period of Baekje Tower Park’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the period of Baekje Cult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designated as a historical site, ‘the period of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for a Specific Area of Baekje Culture’, which was proceed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ark and museum instead of restoring the temple building due to the difficulty in gathering the pieces of historical evidence, and ‘the period of the Jeonglimsa temple site restoring project’, which was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Site while restoring the buildings deployment in the Buddhist temple at the time of foundation era of Baekje Dynasty. Third, this study verified the landscape changes of the Jeonglimsa temple site that have been transitioned, for instance, the creation of a commemorative park linked to the outer garden of Buyeo Shrine, the implementation of urban planning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creation of a protective environment for the excavated historical structures and temple area, the restoration of building deployment in the Buddhist temple, and the sincerity restor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assets. Fourth, the landscape of Jeongnimsa temple site is determined by the subject and scope of cultural property designation, land use, movement lines and pavement, repairing methods of remains, structures, facilities, and veget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heritage landscape of Jeongnimsa Temple were derived, such as creating a procedural landscape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the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scope, securing authenticity by maintaining relics in consideration of reversibility, creating a vegetative landscape suitable for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s, and enhancing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enjoyment by providing an open space.

Key words: Cultural Heritage Landscape, Cultural Heritage Policy, Deployment of Buildings in a Buddhist Temple, Excavated Historical Structures, Historical Site Maintenance

[†]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 hsso@uos.ac.kr

국문초록

정림사지 정비사업은 사찰을 구성하는 건물의 원형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점차 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 정비로 이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첫째, 문화재 조경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된 문화재와 주변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경관을 조성, 유지, 관리하는 조경 행위로서 유구 보호 및 정비, 기능별 공간 배치와 동선계획,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방문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 도입, 식생경관 조성을 포함하는 작업이다. 둘째, 정림사지 문화재 경관은 일제의 문화재 지정과 발굴조사로 사찰명이 밝혀진 ‘고적조사사업’, 광복 이후 ‘백제탑공원 조성’, 사적으로 지정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고증의 어려움으로 전각의 복원 대신 공원과 박물관 건립으로 이행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백제 창건 당시 가람 배치를 회복하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정림사지 복원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부여신궁(扶餘神宮) 외원(外苑)과 연계된 기념공원 조성, 일제강점기의 시가지계획 실현, 발굴 유구와 사역의 보호환경 조성, 가람 배치의 원형복원, 문화재의 진정성 회복과 활용이라는 정림사지 경관 변화의 배경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림사지 경관은 문화재 지정대상과 범위, 토지이용, 동선·포장, 유구정비 수법, 구조물, 시설물, 식생으로 결정되는데 이들의 정비 양상을 고찰한 결과, 문화재 영역의 시각적 차별화로 위계성 부여, 문화재 지정 범위 확장을 고려한 과정적 경관 조성, 가역성을 고려한 유구 정비로 진정성 확보, 역사문화경관에 어울리는 식생경관 조성, 오픈스페이스 제공으로 문화유산 향유가치 증진이라는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가람 배치, 문화재 경관, 문화재 정책, 발굴유구, 사적 정비

I. 서론

정림사는 부여읍 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백제 시대 문화재로서 1983년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로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정림사지 지상부에는 국보인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이하 ‘오층석탑’)과 보물인 부여 정림사지 석조여래좌상(이하 ‘석불상’)이 있다. 정림사는 지하부에 사찰 전각의 유구가 매장된 고고유적으로서 유적의 원형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정림사는 100여 년 동안 정비되었는데, 전각의 원형복원을 목표로 하다가 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 정비로 이행되고 있다. 여기서 기능과 실체는 사라졌으나 장소성이 남아 있는 매장문화재는 향후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문화재 정비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정림사지 정비와 복원에 관한 연구는 유적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고고학적 연구와 역사적 건축물의 원형을 고증하는 건축학 분야에 집중되었다. 최근 석조물에 대한 보존과학적 연구로 전개되는 양상이 보이지만 조경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문화재 공간의 조경 정비와 관련하여 『사적지 조경 정비 기준 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는 사적지 조경 정비의 개념과 대상을 제시한 최초 연구로서 의미가 있지만 서원에 국한되었다[1]. 사적 정비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적정비편람』은 조경 분야를 수목 관리에 한정하고 세부 요소는 다루지 않았으며 [2],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사적정비지침)」에서도 수목 식재 및 관리와 경관석 배치에 한정

하는 등 우리나라 문화재 관련 법제도에서 조경 분야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3]. 신현실(2018)은 발굴유적의 정비에서 문화재 원형의 형태적 복원 뿐 아니라 경관 조성이 중요하며 조경은 발굴유적의 보존과 전시효과 상승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하였다[4].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수행된 정비사업을 고찰하여 정림사지 문화재 경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현대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경의 태도 및 방법과 차별화되는 문화재 조경의 역할과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연구의 목표가 되는 ‘문화재 조경’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된 문화재와 주변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경관을 조성, 유지, 관리하는 조경 행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문화재 조경은 ‘개체’ 중심의 점적 문화재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자연경관과 문화적 산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일보한 인식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문화재 조경에는 유구 보호 및 정비는 물론이고 주변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기능별 공간 배치와 동선계획,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방문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 도입, 식생경관 조성을 포함한다고 이해하였다. 정림사지의 문화재 조경을 고찰하는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사적으로 지정된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번지 일원($61,449m^2$)이다(그림 1).



그림 1. 연구 대상 위치도와 사적 지정 범위[5]

지난 2011년까지 4차례(1~10차)¹⁾의 발굴조사로 정림사가 백제 사비기 사찰의 전형적인 가람 배치 양식인 일탑일금당을 갖추었다는 사실과 기와를 이용한 건물 기단의 독특한 축조 방식을 밝혀냈다. 또한 방형의 동·서 연지(蓮池)는 고대 사찰에서 찾기 힘든 사례로서 고대 사찰 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된다. 매장문화재의 특성에 따라서 학술조사와 정비사업이 병행되는 정림사지는 문화재 복원과 정비를 이해하기 좋은 대상이다.

이러한 역전에서 본 연구는 1910년부터 2020년까지 정림사지 문화재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고적조사 및 지정문서, 국가기록원 소장 공문서, 학술조사 및 연구보고서, 정비계획서, 보도자료, 사진자료, 관광안내자료와 같은 문헌을 분석하여 정림사지 문화재 경관의 변화상과 관련된 정비 내용을 추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 결과 고적조사사업, 백제탑공원 조성, 백제문화권개발사업,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정림사지 복원사업, 백제왕도핵심유적정비사업을 확인하였다. 순차적으로 진행된 6개의 정림사지 문화재 정비사업들의 주체, 범위,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문화재 행정의 역사적 변천을 파악하였다. 진행된 시기에 따라서 문화재 정비에 대한 인식과 방법이 달라진 양상을 보여준다는 분석의 의의를 지닌다.

정비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정림사지 문화재 경관은 정비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사적정비지침」 제8조 제1항에 의거한 [별표] 문화재별 종합정비 계획 보고서 작성예시를 연계하였다. 작성예시 중에서 계획의 구체성을 떠는 'IV. 종합정비방안'에서 다루어야 하는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를 경관형성요인이라고 이해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적정비지침」의 '보존·정비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정림사지는 일제강점기 「고적금유물 규칙」의 등록제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의 보물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국보, 보물, 사적으로 지정된 사실이 해당된다. 여기에 다음 항목인 '관련법규 검토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인 백제탑공원으로 결정된 사실을 포함하여 '지정대상 및 범위'라는 분석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세 번째 '학술조사 대상 및 범위' 항목은 정림사지 발굴조사

와 관련되며, 네 번째 '사유지 매입 대상 및 범위' 항목과 관련하여 정림사지는 사역에 대한 발굴조사 대상지의 확대 필요성에 의거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이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용도 변경과 공간 이용을 위한 배치 개념까지 포함하는 '토지이용'이라는 분석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유적 및 유구 정비' 항목은 정림사지에서 발굴 유구의 지상부 처리 방식에 해당되는 '유구정비 수법'으로 분석하였다.

「사적정비지침」에서 '주변정비' 항목은 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석축·배수로, 경계울타리라고 예시되었다. 먼저 탐방로는 이용자 동선체계와 시각적인 바닥포장재료를 포함하여 '동선·포장'으로 정리하였다. 「사적정비지침」에서 수목의 제거 및 전통 수종 식재, 녹지 조성 등을 '식생·조경'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식생'으로 분리하고, '석축', '배수로', '경계울타리'라는 세부 항목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형의 변경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구조물'이라는 분석 대상으로 통합하였다. '편의·부대시설'은 해당 문화재 관리와 방문자 편의를 위해 도입되는 점적 경관 요소이므로 '시설물'로 구분하였다. 이때 '소방방재시설'은 정림사지의 외부 경관에서 주목되지 않는 시설물이므로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림사지 문화재 경관의 형성요인을 지정대상 및 범위, 토지이용, 동선·포장, 유구정비 수법, 식생, 구조물, 시설물이라는 7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정비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최종 단계로서 경관형성요인의 정비 양상에서 반복되는 경향을 토대로 하여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표 1. 사적정비지침 계획 항목 연계를 통한 경관형성요인

사적정비지침의 계획 항목		경관형성요인
보존·정비 대상 및 범위		문화재 지정대상과 범위
관련법규 검토 사항		
학술조사 대상 및 범위		토지이용
사유지 매입 대상 및 범위		
유적 및 유구 정비		유구정비 수법
주변 정비	탐방로	동선·포장
	안내표지판	시설물
	식생·조경	식생
	석축·배수로	구조물
	경계울타리	
편의·부대시설	안내소·매표소, 관리사무소, 박물관·야외전시물,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시설물

III. 결과 및 고찰

1. 정림사지 문화재 정비사업의 변천

1) 고적조사사업(1910~1945)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와 종추원의 고적조사위원회는 식민지 문화정책의 정당화를 목적으로 고적의 발견과 지정, 보호 및 보수 등 고적조사사업을 시행하였다[6]. 이러한 배경에서 정림사지 정비는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폐사지인 정림사지에 남겨진 오층석탑과 석불상만 고적으로 지정하고, 두 개의 점적인 석조문화재의 현상유지를 위한 부분 보수와 최소한의 보호시설을 설치하였다. 1930년에는 고적 주변의 환경 정비로 오층석탑 일대에 매화나무, 벚나무를 식재하였다. 이것이 법제화된 정림사지 최초의 문화재 경관인데(그림 2a), 석불상 북쪽에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백제의 패망국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김유신찬양비(金庾信讚揚碑)²⁾가 건립되어 문화재 경관이 훼손되기도 하였다(그림 2b).

1940년대에 부여읍 일원에 일제의 신궁 조영 및 시가지계획이 추진되면서 정림사를 신궁의 외원과 연계되는 공원으로 계획하였다(그림 3a). 정림사지에 대한 최초의 정비계획인 셈인데, 1941년 조선총독부 문건인 '부여 평제탑 부근 공원화 공사에 관한 건'에서 확인된다. 공원 조성에 앞서 공원예정부지(동남리 254번지, 11,881m²)를 대상으로 금당지와 중문지 전면 조사, 강당지와 회랑지 부분조사로 최초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8]. 조사 결과 일탑일금당 가람배치가 확인되고 '정림사명' 기와가 출토됨으로써 정림사지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9], 같은 해 '백제탑공원'이라고 명명되었다³⁾. 하지만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채 광복을 맞이하고 이어진 전쟁으로 발굴 유구에 대한 보수정비가 시행되지 못했다. 백제 사찰의 명칭과 가람이 규명되었음에도 1940년 말 조성된 공원에는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림 2. 법제화된 정림사지 최초의 문화재 경관[10]

2) 백제탑공원 조성(1946~1978)

백제탑공원 조성은 당시 항공사진과 1979년 정림사지 발굴 조사를 시행하기 전 현황을 기록한 자료로 파악할 수 있다. 1947년 항공사진에서 김유신찬양비가 사라지고 부여읍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a). 1979년 현황 보고자료에는 1942년에 발굴조사를 진행했던 공원예정부지를 대상으로 방형의 토지구획, 오층석탑과 석불상 보호책 설치, 화단 조성 및 향나무 식재, 외곽 경계부에 소나무와 플라타너스 식재, 배수시설 설치라는 공원 조성 내용이 기록되었다⁴⁾.

백제탑공원이 조성되면서 석조문화재의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정림사지가 면적인 영역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계획안을 수용함으로써 주체적인 정비 사업이 아니었고 발굴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백제 사찰의 가람 배치와 전혀 관련 없는 경관이었다. 1950년대 이후 공원의 남쪽에는 학교시설, 동쪽에는 공장시설이 건립되면서 일대의 경관이 크게 변화되었다(그림 3b).

3) 백제문화권 개발사업(1979~1992)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발굴조사의 선행과 관계전문가의 참여 확대라는 방침을 세워 추진되었다[11]. 이 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이 수립한 백제고도문화권 정비 계획에 따라 정림사지 발굴조사로 사지의 전모가 드러나고 문화재적 가치가 규명되었다[12].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중심사역(약 18,000m²)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중문지,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 회랑지, 동북건물지, 연지 유구가 확인되었다[13][14]. 그 결과 동북건물지를 제외한 발굴 유구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15]. 1992년에는 강당지에 대한 세부 발굴 조사가 시행되고 강당지 상부에 석불보호각을 건립하였다[16]. 또한 1983년 정림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토지 매입과 공장시설 철거, 사적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진입광장, 매표소, 정문, 담장, 주차장을 신설하고 바닥포장, 수목 식재 등으로 사적지로서 면모를 갖추었다[17](그림 3c).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 정림사지 정비는 발굴조사 결과가 반영된 최초의 시도였으며, 유구 이외의 조경 정비가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외부공간의 정비 영역이 확대되고 연지 유구가 확인되자 문화재 정비를 위한 현지 실사 및 자문에 조경전문가가 참여하게 되었다⁵⁾.

4)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1993~2005)

1987년 사적 지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정림사 재현 복원과 함께 사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지실, 종무소, 요사채 등 지원시설을 신축하여 사찰을 운영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18]. 당시 신문기사에서 사찰의 원형복원을 목

표로 한 고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이 알 수 있다⁶⁾. 하지만 건축물의 고증이 어려워 정림사지의 복원계획이 무산되자 문화재 경관 훼손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1년 건설부는 백제문화유적 정비를 통해 지역개발과 관광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림사지를 특정지역으로 선정하였다[19].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과 충청남도는 정림사지 문화재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공장철거부지($40,751\text{m}^2$)에 박물관 건립과 부대시설 공사를 계획하였다. 1994년에는 박물관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공간으로서 부지 정비 후 산책로를 조성하고 전통 수종을 식재한 소공원을 조성하였다[20](그림 3d). 1998년부터 박물관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2005년까지 야외공연장, 광장, 산책로를 조성하고 식생을 정비하였다[21].

5) 정림사지 복원사업(2006~2014)

문화재청과 충청남도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림사지 복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진정성 회복을 위하여 시기가 불명확한 유구를 재조사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지 전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재실시하였다. 중심사역에서 확인된 중문지,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 동서건물지, 동서회랑지, 북승방지[22]로 백제 창건 당시 정림사지의 가람 배치를 회복하고 일부 건물지의 기단부 축조기법을 재현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유구 관람데크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그림 3e). 2010년에는 부지 남쪽의 도로를 없애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인근 학교 시설과의 완충공간을 확보하였다.

6) 백제왕도핵심유적정비사업(2015~진행중)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자 문화재청은 역사경관 조성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백제왕도핵심유적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림사지 내 협문, 담장, 매표소 등 시설을 정비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며, 2025년 까지 와요지 유구 정비, 박물관 수장고 증축, 안내센터 설치가 추진될 예정이다[23](그림 3f).

2. 경관형성요인별 정비 양상

1) 문화재 지정 대상과 범위

1916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고적급유물규칙'의 등록제도에 따라 '부여읍남오층석탑(43번)', '부여읍남석불상(44번)'으로 등록됨으로써[26] 정림사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시작되었다. 이후 1933년에 공포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보물 제33호 부여 평백제탑'이 지정되고 1935년에는 '보물 제179호 부여읍남석불좌상'으로 지정되었다[27]. 이와 같은 점적인 문화재 지정에서 나아가 1939년 일제가 수립한 '부여 시가지계획'에서 오층석탑과 석불상이 포함된 '백제탑공원($11,199\text{m}^2$)'이 구획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보 제9호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으로, 1963년 '보물 제108호 부여 정림사지 석불좌상'이 지정되었다. 1983년에는 '사적 제301호 부여 정림사지($30,172\text{m}^2$)'로 지정되었다[28]. 이후 발굴조사의 성과로 1987년 사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59,245\text{m}^2$)[29], 2020년 도로 편입 및 오기 정정 등을 통해서 사적 지정 면적이 $61,449\text{m}^2$ 로 확정되었다[30].



그림 3. 정림사지 문화재 정비사업별 관련 도면

살펴본 바와 같이 정림사지의 문화재는 국보와 보물 등 점적 대상에서 사적이라는 면적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발굴조사로 고고유적인 정림사지의 영역이 확장된 결과이며, 중심사역에 엄격한 원형 보존 원칙이 반영됨으로써 측면 부지에 방문자 편의를 위한 지원 공간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2) 토지이용

정림사지 일원의 토지이용은 사회적 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당시 신문기사⁷⁾로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정림사지 일대가 광장, 운동장, 훈련장, 공원 등 집합 및 체육시설로 이용되었으며, 광복 이후 백제탑공원이 조성되면서 그러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1950년대부터 공원 주변으로 학교와 공장시설이 들어섰다. 이는 정림사지가 부여읍 중심부에 위치하고 평지형 사찰의 특성상 접근이 양호한 넓은 부지라는 이점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실시된 발굴조사로 정림사지의 면모가 밝혀지면서 공원이 아닌 '사적지'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정림사지가 백제문화제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항공사진으로 정림사지 일대의 토지이용을 확인하였다. 1947년 사진에는 오층석탑과 석불상만 방형으로 확인되고 주변은 민가와 경작지가 주를 이룬다(그림 4a). 1960년 사진에서 오층석탑과 석불상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탑공원이 조성되고 남쪽으로 부여중학교, 동쪽으로 공장시설이 보인다(그림 4b). 1980년대 매입한 주변 토지가 1983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그림 4c). 1987년에 문화재 확대 지정을 통해 보호구역

이 추가됨에 따라서 공장시설 철거 후 부지 정비(그림 4d) → 관람로 및 주차장 설치(그림 4e) → 박물관 등 관람 편의 및 문화공연장 조성(그림 4f)으로 토지이용이 변화되었다. 2010년에는 사적 부지 남쪽의 도로를 녹지로 조성하였다(그림 4f).

3) 동선 · 포장

남~북 방향의 가람 배치를 가지는 정림사지는 부지 아래쪽 남문을 통한 진입 특성에 따라서 강한 시각축을 형성하며 사찰 중심공간으로 접근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이러한 동선체계는 여러 번 변형되었다. 1950년대에 정림사지 내부에 학교시설이 건립되어 남쪽 진입이 차단되고 서쪽 도로와 동쪽에 위치한 공장을 연결하는 동선이 이용되었다(그림 5a). 이후 1979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로 정림사의 가람배치 특성을 밝혀내어 남쪽 까지 사역을 확장하였고 정문, 매표소, 주차장으로 구성된 진입 공간을 조성하여 남쪽 동선을 확보하였다(그림 5b). 1987년 이후 공장 이전 등으로 사역의 범위가 동쪽으로 확대되고 박물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박물관 앞을 지나서 측면에서 진입하도록 동선을 조정하였다(그림 5c). 2010년대에는 문화재 경관의 진정성을 회복하도록 폐쇄했던 정문을 개방하고 매표소 기능을 되살려 남쪽 진입의 동선체계로 개선하였다(그림 5d).

바닥포장 정비 내역은 1940년대 후반 백제탑공원부터 확인되는데, 관람로는 마사토 다짐하고 나머지는 잔디를 식재하였다. 1980년대 발굴 유구를 정비하면서 유구 표면과 사역 외곽에 잔디를 식재하고 관람로는 마사토 다짐하여 구분하였다(그림 3c). 1994년 문화재 보호구역에 조성한 소공원에서 관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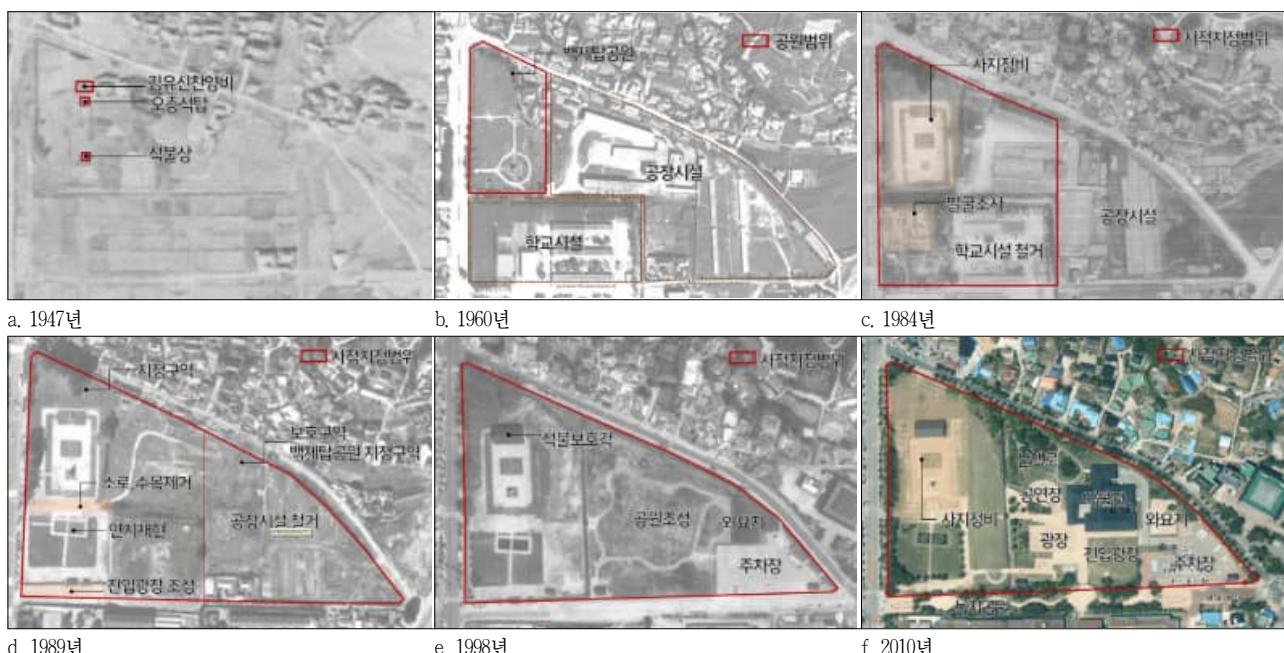


그림 4. 정림사지 일대의 시기별 항공사진[31]

는 투수콘 포장, 주차장은 소형고압블럭으로 포장하였다(그림 3d). 2000년 이후 중심사역은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는 마사토다짐, 전돌 포장, 잔디 식재로 구성하고, 박물관 영역은 공간 기능에 따라 점토블럭 포장, 아스콘, 시멘트 포장으로 다양한 재료가 도입되었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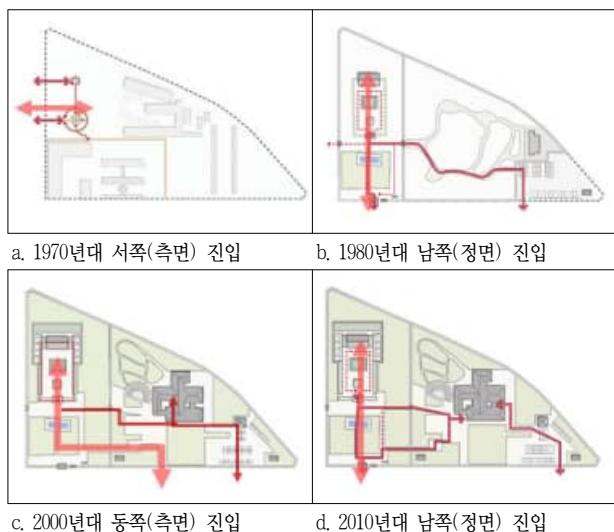


그림 5. 정림사지 동선체계의 변화

4) 유구정비 수법

유구의 정비는 매장문화재의 형상을 드러내거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유지하여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다. 정림사지 유구의 정비 대상은 지상부 석조문화재와 노출된 발굴유구로 구분된다. 석조문화재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상유지를 위한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발굴 유구는 시기별 고증의 범위와 역할에 따라 노출전시, 평면표시, 재현으로 변화되었다(그림 6).

정림사지의 발굴조사는 1942~1943년, 1979~1984년, 1992년, 2008~2011년으로 네 차례 실시되었다(그림 7). 1979년에 조사된 발굴 유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인 '사지유구 정비에 관한 지침⁸⁾'에 따라 건물 유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복토하고 상부에 잔디를 피복하는 평면표시로 정비되었다(그림 6b). 1985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⁹⁾에 따라 발굴조사로 확인한 위치에 성토기반층을 조성한 후 상부에 입출수구의 배수 체계를 갖춘 연지를 재현하였다. 발굴조사에서 호안 석축은 북·서안에서만 확인되고 동·남안은 토축과 목주열을 이용한 시설이 확인되었으나 재현된 연지는 사방을 석축으로 조성하고,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처리했던 석축의 모서리를 직선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발굴조사에서 동지의 남쪽에서 취수를 위한 소규모 유입구가 확인되었고 서지의 북쪽에서 출수 흔적이 확인되었지만, 정비 시 다른 위치에 입출수구를 설치하였다.

1990년에 수립된 정림사 복원 기본계획 중에서 문화재 지정 구역의 정비는 1992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석불보호각과 중문 복원으로 축소되었다. 고려시대 강당지에 석불보호각이라는 명칭으로 백제 건축 양식을 추정하여 건물을 재현하였으나 선부른 복원이었다는 논란을 야기시켰다[32](그림 6c). 당시 함께 추진되던 중문 복원은 1994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재현 시 규모와 양식의 고증 문제로 보류 결정되어 실현되지 못했다[33].

2006년부터 정림사지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979년의 발굴 조사로 확인된 유구의 시간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여 2008년부터 재조사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백제 창건기 가람배치라는 사실과 건물의 기단부 축조 방식을 밝혀내고 [34], 유구 정비에 부분업체 재현하였다. 또한 발굴유구의 시기가 중첩되지만 정림사지가 백제 사비도성의 중심사찰이라는 역사성을 기준으로 복원 시점을 변경하였다[35]. 이렇게 백제 시대 강당지의 규모와 위치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건립된 고려시대 강당은 존치되고 있다(그림 6d).



그림 6. 정림사지 유구정비 수법의 변화

5) 구조물

1980년대 정림사지가 사적으로 정비되면서 문화재 지정구역에 외곽 담장, 정문, 관리사무소가 도입되었다. 당시 전통 미감을 표현하는 재료와 형태를 구조물 디자인에 적용함으로써 이들까지 문화재로 오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987년 이후 문화재 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최소한의 구조물만 유지하고 관리사무소는 보호구역으로 옮겼다. 1990년대에는 문화재 중심 영역과 보조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존 용벽을 철거하고 석축을 쌓은 후 상부에 전통 담장과 협문을 설치하고 계단을 만들어 5m 내외 지반고의 차이를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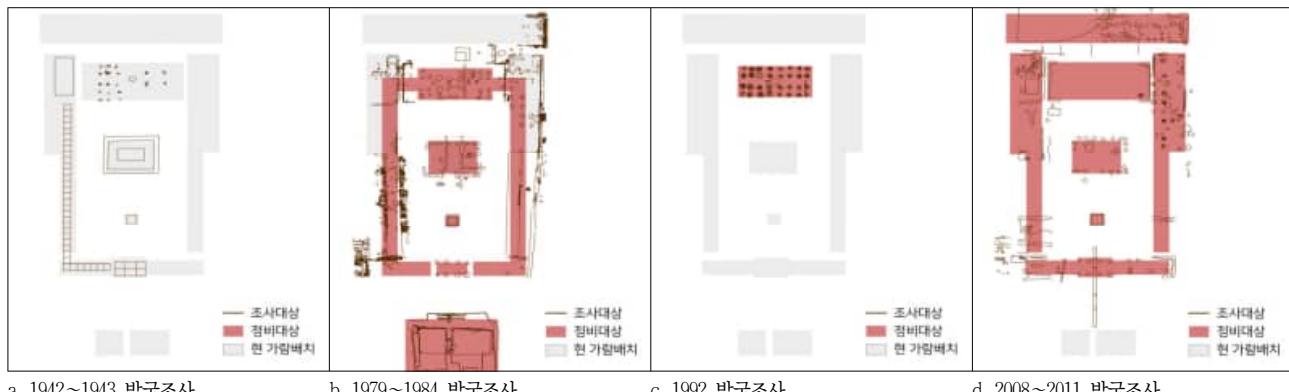


그림 7. 정림사지 발굴조사와 정비 범위

1980년대 발굴된 연지는 호안석축의 구조가 빈약하고 바닥 면은 지하 4m에 달하며, 연지 인근 소하천의 하상(河床)보다 낮은 지층에 위치하여 이곳으로 유입되는 지표수에 대한 배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14]. 이에 연지 유구 상부에 1.5m 높이로 성토기반층을 조성하고 비닐을 깐 후 0.5m 두께로 진흙을 다져 채워 방수층을 조성하였다. 방수층으로부터 1.9m 높이의 호안석축을 방형으로 두른 후 토사를 채워 바닥면을 조성하였다[17]. 또한 동지의 동편에 집수정과 펌프실을 설치하여 흡관을 따라 동지 동측벽에 돌출된 형태로 입수구를 만들고 서지에 일정 수량이 채워지면 U자형 출수구에 연결된 흡관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하였다. 전체 배수는 「사적정비지침」에 따라서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부지 남쪽에 흡관과 집수정을 매설하였다[39].

6) 시설물

1970년대 백제탑공원으로 이용된 시기까지는 보호책과 안내 시설만 있었는데 문화재를 고려하지 않는 규모로 인해 위압감을 조성하고 문화재로의 시야를 차단하였다. 1980년대 정림사지가 사적으로 정비되면서 개별 유구 안내판, 벤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이들은 전통 양식과 재료를 적용하여 문화재로 오인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현재 정림사지에는 문화재 보호 및 관람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편의시설, 안내 시설, 보호책, 경관조명시설이 도입되었다. 이는 지하의 훼손이 우려되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여 향후 보호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고려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시설물 통합 디자인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서 현대 재료와 형태로 변화되었다. 2018년에는 관람로를 따라 보행조명등을 배치하고, 석탑, 연지, 외곽 경계에 식재된 수목에 투광등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향상시켰다[40].

7) 식생

1934년에 발행된 '백제의 구도, 부여고적명승안내도'에서 정림사지 일대에 화목류가 식재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7a). 『취미의 부여(1941)』에서는 1933년경 정림사지와 인접한 부소산성과 남령공원 일대에 매화 묘목 천여 그루를 식재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41]. 1938년 4월 24일자 동아일보의 '고도부여상춘객 일일천명돌파'라는 제목하에 부여에 앵화매림(櫻花梅林)를 관상하고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기사로 정림사지 일대에 매화나무와 벚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61년 4월 1일자 조선일보의 '부여 상록수회원들 백제탑공원에 식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천 본의 상록수를 심었음을 확인하였다. 1965년 백제문화제 당시 사진에는 백제탑공원의 화단에는 향나무와 소나무가 있고 공원 경계부에 플라타너스, 소나무, 벼드나무 등이 밀생하고 있다(그림 13a).

1970년대는 오층석탑과 석불상으로의 시선을 유도하는 향나무 일부를 남겨놓고 대부분의 수목을 제거하였다(그림 8b, 9b). 1985년의 정비계획도에 의하면 정림사지의 사역이 동쪽과 남쪽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계부에서 생육하던 플라타너스와 소나무를 제거하거나 이식하였다(그림 8c, 9d). 또한 재현된 연지 내부에는 발굴조사 당시 퇴적토에서 발견된 연꽃을 식재하고, 역사경관에 어울리도록 기존의 플라타너스를 제거한 후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1995년 정림사지 정비공사 계획도에서는 동쪽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고 소나무, 목련, 회화나무, 느티나무, 산수유, 영산홍, 진달래 등 전통 수종을 식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그림 8e)[20]. 2000년대 이후 중심사역 내 수목 식재를 지양하고 서쪽 담장 외곽에 면한 상업시설을 차폐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식재하였다(그림 9d). 비교적 높은 지형인 사역의 북측 일대는 마운딩하여 후원과 산책로를 조성하여 고저차를 처리하였다(그림 3e, 4f).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문헌 기록과 부여 지역 백제 유적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수종¹⁰⁾ 중에서 사찰에 어울리는 소나무, 느티나무, 살구나무, 불두화 등을 식재하

였다(그림 8f).

정림사지 식생 정비의 양상은 첫째, 차폐와 경계 처리와 같은 기능식재에서 역사문화경관 형성과 관리를 위한 식재로 변화되었다. 또한 문화재 공간에서 구조물 설치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에서 경사지의 지형을 극복하거나 식재로 인공 시설물의 위화감을 완화시켰다. 둘째,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을 구분하여 식생을 차별성있게 정비하였다. 즉, 문화재 지정구역에서는 유구 보존을 우선하여 식재를 지양하였으며, 보호구역의 박물관 영역에는 역사문화경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식재가 이루어졌다. 셋째, 식재 수종은 사료(史料) 및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증을 거쳐 선별하고 식재 시점의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림 9. 정림사지 식생 정비의 변화

역은 마사토 다짐, 전돌 포장, 잔디, 보호구역은 점토블록, 아스콘, 시멘트 포장으로 차별화하고,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는 시설물 도입을 지양하고 원지형의 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구역에 중점적으로 배치하였다. 마찬가지로 유구가 보존된 문화재 지정구역에는 식재를 배제하고 지원시설공간인 보호구역에 기능식재를 도입하여 차별화된 경관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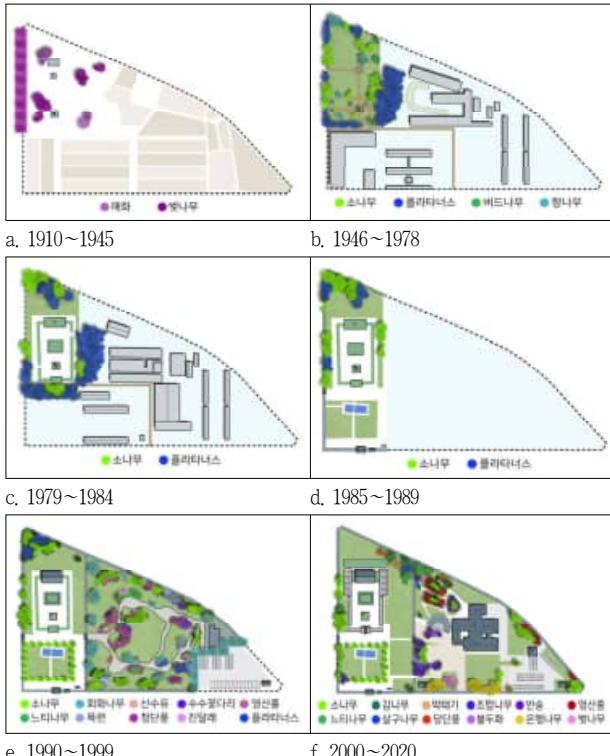


그림 8. 정림사지 시기별 식생 정비 변화

3. 정비를 통해 본 문화재 조경의 역할

1) 문화재 영역의 시각적 차별화로 위계성 부여

문화재 공간은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허용과 제한사항을 부여한다. 정림사지는 중심사역이 위치한 문화재 지정구역과 박물관 일원의 보호구역으로 구분함으로써 보존과 활용이 상호 보완되도록 정비하였다. 정림사지의 두 영역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여 5m 내외 지반고의 차이를 해결하고 영역의 구분을 가시화하였다(그림 10). 또한 문화재 지정구



그림 10. 담장으로 구분한 정림사지의 두 영역

2) 문화재 지정 범위 확장을 고려한 과정적 경관 조성

매장문화재는 추후 발굴과 학술조사가 이루어질 잠재력이 높은 문화재 유형이므로 문화재 지정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 있다. 또한 발굴조사 전·후 또는 복원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방치되는 동안 경관 훼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정림사지의 문화재 지정 범위와 토지이용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1950년대 설립된 학교와 공장의 이전과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40여년이 소요되었던 시행착오를 겪었다. 2010년에 사적지 남쪽 경계에 면한 도로를 녹지로 조성한 것도 정림사지 사역의 확장을 고려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림사지는 1987년 문화재 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서 보호구역에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가람 전체와 동일한 규모로 재현하고 사찰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종무소 등 지원시설

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백제 시대 건축 양식의 고증 문제로 정비가 미뤄지자 구체적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 공간 임을 전제하여 구조물이나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바닥포장과 수목 식재 위주로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재 정림사의 온전한 사역을 파악하려면 박물관이 위치한 문화재 보호구역도 발굴조사가 필요한데, 1980년대에 시굴조사만 진행한 상태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과정적 경관을 제공하여 필요할 때 되돌리기 용이한 재료와 시공 방법으로 문화재 환경을 정비한 조경의 역할이 확인된다.

3) 가역성을 고려한 유구 정비로 진정성 확보

정림사지 발굴조사와 연구의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서 유구 정비 수법이 변화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재 경관의 진정성과 연계된다. 정림사지의 재현·복원 시도 중에서 유구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복원이 발생하였다.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제2장 제9조에 따르면, 가역성을 고려한 정비를 통해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강당지의 석불보호각과 호안의 축조 방식과 입·출수구가 발굴조사 결과와 다르게 재현된 연지는 오류를 파악하였어도 조성된 경관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역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그림 11, 12).

반면에 2008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기단부 유구를 입체적으로 복원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관람자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관람데크를 설치하여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이처럼 건축물과 구조물을 세우는 대신 가역성을 고려한 조경 정비는 정림사지의 진정성에 근접하는데 기여한다.



그림 11. 백제시대 강당지 위에 설치된 석불보호각[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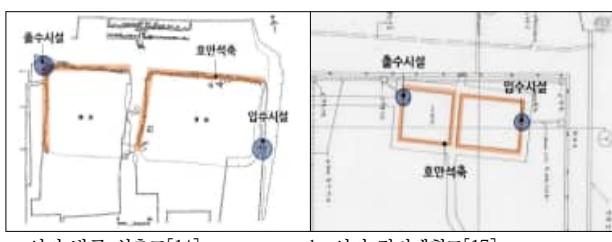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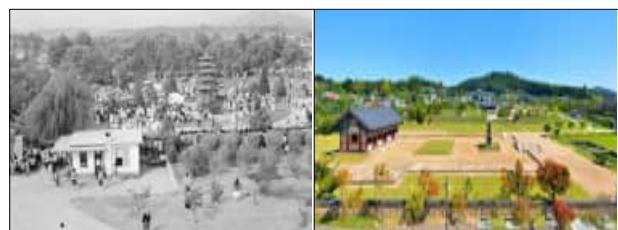


그림 12. 연지 호안석축의 발굴 실측도와 정비 결과

4) 역사문화경관에 어울리는 식생경관 조성

지상에 노출된 유구가 적은 매장문화재 공간에는 경관 조성에서 식생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일제강점기 정림사지에 벚나무와 매화나무가 식재되었고, 광복 이후 백제탑공원 조성 시 무분별한 식재로 백제시대의 사찰 유적이라는 고유성이 훼손되기도 했다(그림 13a). 현재는 중심사역의 문화재 지정구역에는 서쪽 경계부에 차폐식재와 연지 주변 소나무 식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은 수목이 없는 경관을 제공한다(그림 13b). 또한 보호구역에는 문헌 기록과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수종 종에서 사찰에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하여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였다. 지형의 고저차 해결, 경계부 차폐, 영역 구분, 시선 유도와 같은 다양한 기능 식재가 시설물이 최소화된 사역 내 자연스러운 경관을 유도하였다.



a. 1965년 식생 정비 전[45] b. 2020년 식재 정비 후[46]

그림 13. 정림사지 식생 정비 전·후 경관

5) 오픈스페이스 제공으로 문화유산 향유 가치 증진

2005년 정림사지 사찰 신축 계획을 철회하고 학교와 공장 부지였던 공간(그림 14a)에 매장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으로서 박물관과 함께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광장, 후원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그림 14b)를 도입하여 공원의 기능을 수용하면서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화 향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조경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a. 1980년대 보호구역[47] b. 2020년 보호구역[46]

그림 14. 문화재보호구역 정비 전·후 정림사지 경관

IV. 결론

1910년부터 현재까지 수행된 정비사업을 고찰하여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의 특성을 도출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조경'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문화재와 주변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경관을 조성, 유지, 관리하는 조경 행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문화재 조경은 '개체' 중심의 점적 문화재 보호에서 나아가 자연경관과 문화적 산물까지 보호하려는 진일보한 인식이다.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에는 지정구역 내 발굴 유구 보호는 물론이고 공간 기능별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구조물과 방문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 도입, 식생경관 조성이 포함된다.

둘째, 정림사지 정비사업은 발굴조사 결과 및 문화재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었다. 일제강점기 점적 문화재 지정과 최초의 발굴조사로 사찰명이 밝혀졌던 '고적조사 사업', 광복 이후 '백제탑공원 조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정림사지의 원형복원과 사찰 신축을 계획했으나 박물관과 공원 조성으로 전환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백제 창건 당시 가람을 회복하면서 진정성을 인정받고 세계유산에 포함된 '정림사지 복원사업'으로 전개되었다. 현재 백제왕도핵심유적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셋째, 부여신궁 외원과 연계된 기념공원 조성, 일제강점기의 시가지계획 실현, 발굴 유구와 사역의 보호환경 조성, 가람 배치의 원형복원, 문화재의 진정성 회복과 활용이라는 정림사지 경관 변화의 배경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림사지 경관형성요인으로서 문화재 지정대상과 범위는 오층석탑과 석불상에 한정했던 '점'에서 사역과 관련된 고유적에 잠재된 확장가능성을 반영한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면'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토지이용이 경작지에서 공원, 학교, 공장 부지로 바뀌고 1980년대 발굴조사로 유적의 전모가 확인되면서 사적지가 되었다. 현재 중심사역의 문화재 지정구역과 박물관 일원의 지원시설이 도입된 보호구역으로 구성되었다. 정림사지 동선체계는 오층석탑과 석불상이 가시되는 한정된 공간으로 측면 진입하다가 백제 가람배치의 원형에 적합한 정면 진입으로 바뀌고, 복토 후 잔디로 건물을 평면표시하던 유구정비 수법은 기단부 입체재현으로 시인성을 높였다. 문화재 지정구역에는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한 사적지 경계 담장 및 정문, 지형을 해결하는 석축, 배수처리 등 최소한의 구조물을 도입하고, 문화재 보호와 안내시설에서 나아가 관람 편의시설을 보강하되 문화재 원형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시설들을 설치하였다. 과거에 형성된 공원 식재 양상을 개선하고 문화재 영역별로 적합한 기능식재와 고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식생경관을 형성하였다.

다섯째, 경관형성요인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재 지정 구역과 보호구역의 시각적 차별화로 위계성 부여, 문화재 지정 범위 확장을 고려한 과정적 경관 조성, 가역성을 고려한 유구 정비로 진정성 확보, 역사문화경관에 어울리는 식생경관 조성, 오픈스페이스 제공으로 문화유산 향유가치 증진이라는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정비사업 시기별 양상에서 조경의 역할은 1940년대 후반 백제탑공원이 조성되면서 드러나지만, 학술조사와 고증연구를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문화재 조경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기에 발굴조사를 토대로 건축적 원형 복원에서 조경적 경관 조성으로 정비 방향이 전환되면서 문화재 조경의 역할이 본격화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 정책의 방향은 문화재 경관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정림사지에 한정한 연구 성과라는 한계가 있지만, 문화재 조경 항목으로 제시한 토지이용이나 동선체계 등 경관 형성에 관련된 내용이 「사적정비지침」에 직접 반영되고, 나아가 문화재 정비에서 조경의 위상을 세우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 1) 1942~1943년(1~2차), 1979~1984년(3~6차), 1992년(7차), 2008~2011년(8~10차)

주 2) 1927년부터 1930년 김해김씨(金海金氏) 문중에서 '홍무왕김유신장군찬양비(興武王金庾信將軍讚揚碑)'와 보호각을 건립하였다. 1920년대 고적명승안내도에 '김유신비'로 소개될 만큼 당시 고적 명승에 준하는 대상이었다. 김유신찬양비는 정림사지 발굴조사가 시행된 1943년까지 유지되다가 광복 이후 남령공원을 거쳐 규암면의 부풍사(扶風祠)가 건립되면서 1955년에 옮겨졌다고 전해진다.

주 3) 1942년 제작된 '부여읍구획정리지구내가도망도(扶餘邑區劃整理地區內街道網圖)'에 장방형으로 구획된 필지 내에 '백제탑공원'이라고 표기되었다.

주 4) '장방형으로 구획된 약 3,000평의 토지는 공원화되어 주변에 철책과 소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석탑 주변은 약 20년 전에 실시된 조경공사로 화단이 조성되고 배수용 도랑이 만들어졌으며 화단에는 향나무 등 정원수가 가꾸어졌다. 경내 동편으로 따라 플라타너스가 질서 없이 배식되었으며 수령이 20~30년이 넘는 큰 나무들이 적지 않았다'[13].

주 5) 1983년 문화재관리국 기념물과, '83정림사지 정비사업 지침시달(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23495)' 문건

주 6) '백제 불교 문화 본산 정림사 복원(한겨례, 1990. 1. 26.)', '부여 정림사 1300년 만에 제모습 찾는다(조선일보, 1990. 3. 24.)', '백제 대표적 고찰 정림사 복원(동아일보, 1990. 12. 25.)', '백제문화개발, 선부른 복원은 훼손 초래(동아일보, 1992. 8. 4.)' 등 기사에서 백제시대 건축양식의 고증이 전천왕사지(傳天王寺址) 출토유물인 청동소탑 편(青桐小塔片)과 일본의 법륭사(法隆寺) 등 사례연구를 토대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주 7) '각교추계운동평백제탑前광장(동아일보, 1928. 10. 20.)', '부여금조운동개최 평제탑 광장(매일신보, 1934. 6. 5.)', '국립공원설치법 백제탑공원(동아일보, 1959. 5. 11.)', '백제탑공원에 식수, 부여 상록회원들(조선일보, 1961. 4. 1.)', '백제문화제참석, 백제탑광장(동아일보, 1965. 10. 9.)', '새 백제권 정림사지(조선일보, 1978. 3. 7.)', '백제고도

유적정화 본격화 정림사지지구(조선일보, 1980. 2. 5.), '정림사지 사적 지정(조선일보, 1983. 3. 27.)'

- 주 8) '정립사지 발굴지역은 지침에 의거 정비 설계하도록 심의 결정하였으며 건물지 유구정비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강당지, 금당지, 중문지, 회랑지를 대상으로 함. 2) 각 건물지를 성토하여 잔디로 식재함. 3) 화강석으로 주초석을 제작하여 각 건물지의 원위치에 설치하되 초석 밑면에 제작시기를 표시함. 4) 중문지 및 강당지에 연결되는 회랑지는 성토하지 않고 통로로 개설함. 5) 각 건물지에 안내판을 설치함.' (1982년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제4차 '82 사지정비 지침')

주 9) 연지의 축은 발굴 위치와 동일하게 하고, 석축은 공산성 지당 양식과 같게 하라는 결정에 따라 정비되었다(1985년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 제1차 '정립사지 정비').

주 10) 문현 고증으로 벼드나무, 복숭아꽃, 오얏꽃을 백제시대 수종이라고 제시한 바 있으며[16], 궁남지에서 소나무, 참나무류, 느티나무, 비자나무, 뽕나무, 오리나무, 벚나무, 벼드나무, 복숭아나무, 밤나무, 가래나무와 살구씨, 모과 열매, 잣송이, 가래씨, 복숭아씨가 출토되었다.

REFERENCES

- [1] 국립문화재연구소(2010). 사적지 조경 정비 기준화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2]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사적정비변례.
 - [3] 문화재청 예규 제173호. 사적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 [4] 신현실(2018). 발굴유적 외부공간의 유형별 경관계획 및 조경시공원칙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4) : 58~69.
 - [5]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
 - [6] 국립문화재연구소(2016). 1909년 「朝鮮古蹟調查」의 기억.
 - [7] 青木治市(1941). 부여시가지계획평면도, 「扶餘神道に就て」 区劃]整理 七卷第十号 : 47.
 - [8] 국립부여박물관(2015). 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 제15집 「부여 정림사지」.
 - [9] 藤澤一夫(1971). 「古代寺院の遺構に見る韓日の關係」. 『アジア文化』 18(2).
 - [10] 성균관대학교 박물관(2012). 유리원판에 비친 한국의 문화유산.
 - [11] 문화재관리국(1979). 백제고도문화권정비계획.
 - [12]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정림사지 발굴조사 결과보고(관리번호 BA0037464).
 - [13] 윤무병(1981). 정림사지발굴조사보고서. 충남대학교.
 - [14] 충남대학교(1987). 부여 정림사지 연지유적 발굴조사보고서.
 - [15] 문화재청(1982). 1982년 제1분과 제4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82 사지정비지침'.
 - [1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06). 정림사지권역 정비기본계획 : 55-56.
 - [17]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 [18]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사적 제301호 정림사지 주변 추가사적 지정건의(관리번호 BA0807950).
 - [19] 건설부(1991). 백제문화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
 - [20]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충남 부여 1995 정림사지 정비공사(관리 번호 BA0807990).
 - [21] 백제세계유산센터(2020). 백제역사유적지구 단위유산 보존관리현황 연구(정림사지).
 - [2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11). 부여 정림사지 발굴조사보고서.
 - [23] 부여군(2018). 부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
 - [24]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관리번호 A169-001-006).
 - [25] 부여군(2011). 부여 정림사지 정비공사(5차) 수리보고서. 4. 77.
 - [2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고적 및 유물 등록대장 (지방별)(관리번호 F024-007-002).
 - [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보물고적천연기념물 지정 통지공(관리번호 H007-002-033).
 - [28]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부여 정림사지 사적 지정 및 지정구역 통보(관리번호 BA0607087).
 - [29]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부여 정림사지 추가지정 사적 제301호 (관리번호 BA086950).
 - [30] 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 국가지정문화재<사적>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 [31]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http://map.ngii.go.kr>).
 - [32] 이상해(1993). 건축역사문화환경의 보전과 복원의 과제. 문화재 26권 : 336-337.
 - [33] 1994년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제6차 ‘定林寺址中門復元’.
 - [34] 김낙중(2009). 부여 정림사지 발굴조사 성과. 정림사복원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115-126.
 - [35] 부여군 · 백제고도문화재단(2016). 부여 정림사지 고증심화연구.
 - [36] 충청남도(1999). 사진으로 본 충남 100년.
 - [37] 부여군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0. 부여역사유적지구 가이드북II 정림사지지구 : 20~21.
 - [38] 정림사지박물관 홈페이지(<http://www.jeongnimsaj.or.kr>).
 - [39] 1985년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 제1차 ‘정림사지 정비’.
 - [40] 뉴시스. 2019. 7. 15. 기사 ‘부여 유네스코 정림사지 · 나성에 야간경관 조명 설치’.
 - [41] 권오영(2020). 일제강점기 부소산 영역의 인식과 공간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2] (재)부여사적현창회(1934). 부여고적명승안내도.
 - [43] 국립공주박물관(2002). 사진으로 보는 금강.
 - [44] 부여군 공보실 소장 1989~1990 사진첩(1).
 - [45] 대전일보사. ‘옛 사진 공모전’ 수록자료.
 - [46]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소장자료.
 - [47] 윤준웅(1998). 사진으로 보는 부여 100년.

원고접수일: 2021년 10월 31일
심사일: 2021년 11월 18일 (1차)
 : 2021년 12월 13일 (2차)
제재확정일: 2021년 12월 13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